

□ 97대선 학생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 이념 탈피, 새로운 방안 모색

올바른 국민의식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실현

시장거리에서 만난 '민심'은 구정치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선거분위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적 흐름, 극심한 경제불황에 부딪혀 무겁게 퇴보하고 있다.

각 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정치허무주의로 판단하여 국민대중에게 좀더 다가설 수 있는 이념과 사고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자체적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 9월 25일 서울대에서는 '97대선 학생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 '국민승리21',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추진본부' 등에서 4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은 과거의 노동운동 세력과 그에 대한 견해를 각 대표로부터 듣고, 토론과 질의를 통해 각 대표가 제시한 운동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1세기진보학생연합'의 김경기 정책위원장의 입장보고는 폭넓은 진보연합에 기반한 정치세력화는 정치·사회세력간의 역관계속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었다.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에서 벌였던 실험들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으나 작년 민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이 공동대응을 벌이면서 진보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입장보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그는 학생들의 대선대차방안의 구



▲지난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학생운동 대토론회

체적인 성립보다는 모순점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진보진영의 결집도로 지적하는 것은 '선거기계의 일반론적 맹점'이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에 있어서 그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민중중심이라는 의미가 진보운동진영의 사고방식과 언어를 강제할 경우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진보운동진영에 당면해 있는 벽을 허물기위해선 적정선의 득표수 확보를 통해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식되어야만

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21' 김정수대표는 현재 진보운동진영의 모순점과 산발적으로 발생한

각 대중운동세력을 포괄할만한 정치력을 지닌 연합이 부재함을 지적했으며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21세기진보학생연합'과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여성오대표의 입장보고는 특히 눈에 띄었다.

그는 진보운동진영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매년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

직지도체들이 시대흐름과약의 오류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사회적 여건과 정치환경 등을 참패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다른 조직체와는 달리 진보운동진영의 자체적 반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한 '전국학생추진본부' 강현욱 대표는 현재 진보진영 참패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그동안 사회적 여건 속에서 회색되어온 이념과 사고의 재무장을 강조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했다.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변혁을 지향하면서도 명확한 정치전선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중운동은 과거의 이념만이 강조되어오던 운동의 개념을 넘어, 명확한 국민적 테마를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대선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토론기간동안 과거 민중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 무산에 대한 비판과 이념적 논쟁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길은 명확하지 않다.

'97대선 학생운동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비해 조금은 원론적인 토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민주운동세력이 좀 더 구체적인 모습과 좀더 실천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김용운 기자>

강 단 시 론

어떻게 살 것인가

을 여름 유난스런 무더위의 맹위를 채 잊기도 전인데, 어느새 옷깃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시원함을 지나 제법 찬 기운을 끼친다. 이제 가을도 깊어졌다. 고향집을 가의 석류 붙어지고 언덕배기의 밤나무도 송이송이가 누렇게 알알이 영근 열매를 내보일 참이라. 창공은 더욱 파랗게 높아져 끝난 대를 모르겠고 풀벌레 소리도 한결 낭랑하다.

이런 절기에는 지치고 혼탁해진 우리의 심신과 영혼도 문득 가을처럼 맑아진다. 그래서 이 가을날에는 내 삶의 본래 목표와 현주소 사이의 거리를 가늠해 보는, 자아(自我)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살아가는 일상에 온 정신을 빼앗겨 까맣게 잊고 지냈던 본래 면목을 되돌아보는 도처럼의 값진 기회이다. 이는 해마다 한해의 중간 결산을 내보게 하는 절기, 곧 가을이 주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서포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九雲夢)」을 보면, 출가하여 육관대사를 모시고 수도하던 성진(性眞)이는 심부름차 용궁에 갔다가 술을 마시 불음주(不飲酒) 계율을 깨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팔선녀를 만나 수작한 죄로 풍도지옥에 떨어졌다.

다행히 지장왕의 배려로 인간세계에 환생하게 되어,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의 울음소리를 작가는 「구아구아(救我救我)」라고 풀었다. 즉 탄생성의 의미가 바로 '나를 구원하라'는 절절한 자기구제의 외침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 인간 존재는 모태를 떠나 세상에 던져질 때부터 '구원'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일평생을 통하여 크고 작은 그 구원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라야 보람있는 인생임을 밝힌 셈이다. 누군걸 보람있는 삶을 꿈꾸지 않겠는가. 주인공의 이름이 양소유(楊少遊)로 되어 있는데, '소유'란 것은 또 불가적 관점에서 인생이란 잠깐 지상에서 노니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드러낸다. 잠깐동안 사는 인생이기에 큰 깨달음

을 통한 구원만이 삶의 진정한 목표요 가치임을 소설의 대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을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군들의 갖가지 동태로 언론매체는 말할 것 없고 삼삼오오 모이기만 해도 온통 그것이 화제거리이다. 안타까운 일은 그 스스로 잘났다는 후보들 누구도 민심의 거울에 비쳐 볼 때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할 수 없이 맡겼을 때에 그대도 덜 그르칠 만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조차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탄식이 많다. 우리 국민의 눈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비판적 세계 인식에 빠져서인가. 아니면, 후보군들의 지금까지의 형태와 덕성, 자질 등이 국민들의 본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가.

예전의 존경받던 지도층 인사들은 청빈과 신의, 선공사후(先公私後)와 언행일치(言行一致), 솔선수범등을 삶의 당면한 덕목으로 삼아왔던 것인데,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소위 자기 PR시대의 능사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른바 출세하고 성공했다거나 지도자라 자처하는 인사

들의 상당수가 조금만 파들어가면 지극히 속물적인 속속들이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의 토로가 사회에 팽배하고 있음은 아무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구체적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할 것인가. 남의 말하기 좋다고 떠벌리기에 앞서 먼저 각자를 돌이켜보고 바른 자리를 지켜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일찍이 공자님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子子)」라고 가르치셨듯이 대통령답게, 관료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교수답게 직원답게, 학생답게 제 몫을 잘 감당하며 사는 길이 있을 따름이겠다.



김진영
<국어국문학과 교수>

□ 대학생 정치의식 설문조사

김대중 당선 가능성 69%로 1위

야권후보 여론조사서 1위 교수...대학생 유권자 대선 관심도 상승계기

<대학생 유권자 위원회>는 대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현 시기에 대학생 정치의식을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의 김수에 의해 9월 11일~12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학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주요 9개 대학 5백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도는 95%, 오차 한계는 ±4.4%이다. <편집자>

이번 15대 대선에는 94.2%의 학생이 투표 할 계획이며, 김대중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매우관심있다', 46%가 '관심있다'로 그리고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4%의 학생이 투표를 하겠다고 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지난 8월 이후 한달 넘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예전

과는 편이한 정치형태로 인해 수평적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후보는 '당선이 가능한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역시 69%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회창 19%, 조순 5%, 권영길 4% 김종필 3%와의 압도적인 차이로 두각을 보였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85%가 사면 반대라는 의사를 나타내 대선 후보들이 일반 유권자 표를 의식해 전노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학생유권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시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의 정치참여는 제도적,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정책 평가와 대안 제시'가 34%로 1위, '선거 감시' 27%, '정책 연대와 지지 후보 표명' 22%, '독자 후보 허용' 12%, '사회단체 정치참여 가급적 제한' 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에 편승해 '바람직한 선거 연령'을 묻는 질문에 '하향 조정' 45%, '현행 유지' 48%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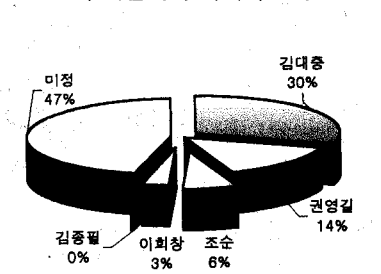
'15대 대선에서 성취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 30%, '수평적 정권 교체' 27%, '세대 교체' 23%,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 문화' 16%, '내각제로 권력 구조 개편' 4%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 특유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줬다.

한편 '각 대통령 후보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김대중 후보에게는 '최근 보수화에 대한 항의를 담은 말'들이 나왔으며, 이회창후보에게는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야유와 해명 요구'가 압도적이었다. 이어 조순 후보에게는 '서울 시장 사퇴에 대한 비판과 경제 회생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권영길 후보에게는 '진보 세력, 혹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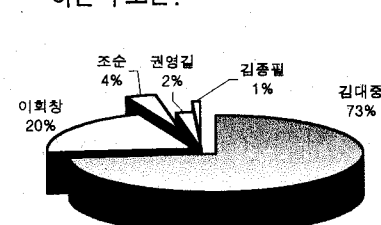
에 대한 질문'과 '당선후 노동,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중필 후보에게는 '어느 후보보다도 정계 은퇴에 대한 요구와 군사 정권 하에서의 전력에 대한 비판'이 상당수 나왔다.

<최현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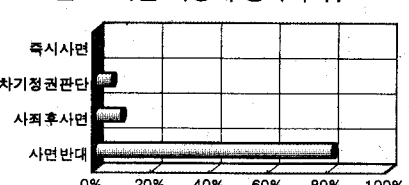
1. 15대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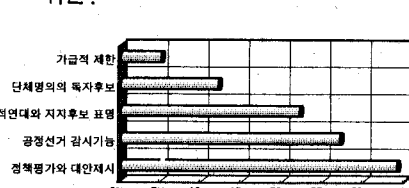
2.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3. 전 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나?



4. 선거시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의 선거참여에 대한 법적허용의 범위는?



사회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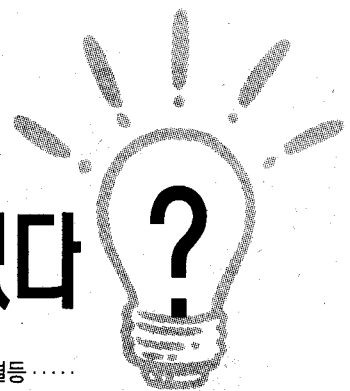
정치개혁 촉구 캠페인 개최

'정치개혁 촉구 캠페인'이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치개혁촉구의 활동이 여야간 타협으로 마무리 되려는 현상화에 대한 정치개혁 촉구를 위해 열렸다. 이 대화를 주최한 '국민승리21'은 지정기탁액, 노조 기부금 허용, 노조 사회단체 선거활동 규제 철폐 등 올바른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전달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

21세기 에너지 - 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구에 필라멘트가 없다 ?



우리생활을 환하게 밝혀주는 형광등과 백열등.....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오래쓰는 전등은 없을가?

한국전력 신기술그룹 광응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의 혁신을 위해 21세기의 빛을 바꾸어 갈

'무전극 형광등'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깨끗하고 질 높은 에너지를 개발하여

문화생활 향상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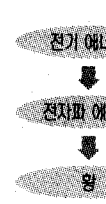
■ '무전극 형광등'이란?

전구 내부에 필라멘트나 전극이 없이 여기코일이나 마그네트론 등에서 발생되는 고주파를 전구 내부의 황에 인가하여 방전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빛을 이용하는 조명기기로서 기존 전등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효율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징

- 고효율 : 100 - 140 lm/W
- 긴 수명 : 약 5만시간
- 무공해 : 발광물질로 황을 사용
- 높은 연색지수 : 80 - 90
- 해로운 자외선이 없음
- 약한 적외선으로 열이 적음

■ 발광 원리



■ 각종 전등의 수명 비교

